

C-1.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의 부가적 요법으로서의 비항균용량 독시싸이클린의 효과

이지영, 김태일, 설양조, 이용무, 구 영, 류인철, 정종평,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1. 목적

이 연구는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과 병행하여 사용한 비항균용량 독시싸이클린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행해졌다.

2. 방법

이 연구는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대조군, 평행대조군 실험으로 9개월동안 행해졌다. 중정도의 만성 치주염을 가진 총 41명의 환자는 무작위로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을 받고, 2주후 독시싸이클린군(SDD) 및 위약군으로 나뉘어졌다.

임상적부착수준 (CAL), 치주낭깊이 (PD), 치은열구액 (GCF),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8, 13) 수준을 모든 실험기간동안 측정하였다. 환자에게 투여한 비항균 용량 독시싸이클린이 미생물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암시야현미경과 세포배양분석법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부작용의 발현도를 조사하였다.

3. 결과

전 실험기간동안 임상적부착수준 (CAL), 치주낭깊이 (PD)의 환자별 감소도에 있어 특히 SDD군에서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이며 두 처치군 모두에서 감소를 보였다. GCF에 있어서의 환자별 감소도는 위약군보다 SDD군에서 더 컸다. 미생물 분석에서 보았을 때도 군간에 유의성있는 차이없이 구균, 비운동성 간균, 호기성세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나선균, 운동성간균, 혐기성균 및 black pigmented bacteria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군간의 MMP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SDD군의 MMP-8, 13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MMP 활성도에 있어서 환자별 감소도는 위약군보다, SDD 군에서 유의성있게 컸다. 실험기간동안 SDD군에서의 부작용발현도는 위약군과 비슷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SRP의 부가적요법으로서의 비항균용량 독시싸이클린의 사용이 만성적 치주염의 장기적 처치에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